

# “靑山別曲”再攷

李 東 根\*

## I. 問題提起

“靑山別曲”에 대한 연구는 梁柱東교수(1947)에 의해 語釋이 이루어진 이래, 構造·主題·表現技法·作家에 대한 연구가 後續되어 왔으며,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本歌를 國歌(李秉岐) 또는 高麗歌謠 中絶調(梁柱東)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무든 장” “에정지” “사사미 짐대에 올라서” 등의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상 통일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主題에 대해서도 각기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라 하겠다.

그런데 本歌의 研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部分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全體를 해석하는 데 自足的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2分段說(金尙億·李仁模)<sup>1)</sup>과 5·6聯의 뒤바뀜(李熙昇·鄭炳昱)<sup>2)</sup>을 주장하는 견해를 따르면, 내용상의 不一致를 설명할 수 없고, 주제를 사랑을 잃은 여자의 悔恨(金完鎭·李仁模·成賢慶)·失意的 平民 文士의 悲哀(徐首生)·술 예찬의 노래(鄭炳昱)·流浪民의 悲慘相(申東旭)이라는 견해

\* 육군 제 3 사관학교.

- 1) 李仁模 교수는(“靑山別曲 內容의 再檢討”) 1分段을 1연에서 6연까지로, 2분단을 7·8연으로 보았다. 한편 李勝明교수는(“靑山別曲研究”) 全篇을 3分段으로 나누고, 1분단을 5연(動機) 2分段을 1·2·3·4·6·7연(過程)으로 3분단을 8연(結果)으로 보았다.
- 2) 金尙億교수는(“靑山別曲研究”) 崔正如교수와 (“高麗의 俗謠歌辭論攷”) 같이 聯順의 交替를 樂習의 必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를 따르면, 청산과 바다라는 배경·장고·술 등의 소재와 여자와의 무관련성, 世俗의 廣大놀이(“사슴이 침대에 올라서”) 그리고 세속적 快樂에 安住(“설진 강수”)와 현실생활의 悲哀와의 內容의 距離, 1分段과 2分段의 內容 構造의 不一致<sup>3)</sup> 등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필자는 語釋·主題·形式·作家 등에 대한 논의는 작품 全篇에 걸쳐서 타당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主眼點을 두고, 本歌는 현실에 不滿을 느끼고 山林에 隱遁하고자 했던 사람이 은둔의 역경을 상상하며 속세에 안주하는 觀念的 청산은둔 다시 말하면 俗世禮讚의 노래라고 생각하고자 한다. 이때 은둔의 역경에 대한 상상은 과거의 체험일 수도 아니면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으리라.

이러한 속세에찬의 의지는 어쩌면 관념적 賞自然 및 은둔을 구가하던 선조들의 생활을 눈여겨 보면 역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것은 조선조 士大夫의 觀念的 自然觀과 유사함에서 韓國的 隱求<sup>4)</sup>라고 命名하고, 이를 별도의 章을 설정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기존 연구 中에서 필자가 회의를 품었던 問題點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分章體와 5·6聯의 뒤바뀔을 주장하는 견해인데, 이는 형식에만 집착한 것으로서 이들의 기준에 입각해 볼 때, 本歌가 麗謠의 絶調 또는 白眉(徐首生)라는 평가는 타당한 것일까?

둘째, 本歌의 主題를 失戀者의 悲哀(金亨奎·梁柱東·全圭泰), 流浪民의 窮乏相(申東旭·朴炳采), 平民 文士의 悲哀(徐首生), 隱者의 노래(金思燁) 등으로 본 것<sup>5)</sup>은 내용의 綿密한 分析 보다는 “청산별곡”이

3) 成慶賢교수는(“靑山別曲攷”) 靑山聯과 바다聯은 漢詩의 起承轉結 구조와 정확히 대응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주장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隱求란 隱遁에 對比될 수 있는 개념으로써, 崔珍源교수가 『國文學과 自然』에서 世態觀望의 隱遁을 나타내기 위하여 使用한 用語이다.

라는 제목과 俗謠라는 장르명에 집착하여 도출된 견해가 아닌가?

세째, 내용만을 고려하여 작가를 平民·女人·隱逸居士(張德順) 등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점은 音樂的 次元에서 재고될 필요는 없는가?

## II. 解析學的 論議

이제까지 先學들은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을 실시한 후 전체적 歌意를 도출하여 왔다. 그 결과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만족스러우나 전체적 가의를 추정하는 데는 비약과 독단이 수반되어야 했다. 이에 필자는 기존 견해를 참고하여 전체적 가의를 먼저 도출한 뒤, 부분을 해석하는 귀납적 해석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靑山별곡”을 해석함에 있어, 아직까지 “물아래” “잉무든 장그” “에정지” “사사미 집대에 올라서” 등의 구절에 대하여 학자마다 이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전체적 가의를 도출하는 데는 이들 보다도 이 노래가 分章體인가 連章體인가 그리고 5·6聯의 순서가 바뀐 것인가 아닌가를 구명하는 것이 더 先決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형식적인 면만 고려하면, 各 聯의 末句를 뽑아 5·6련의 뒤바뀔을 주장한 다음과 같은 權在善교수의 견해는<sup>6)</sup>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靑山련	바다련
1. 살어리랏다	5. 우니노라
2. 우니노라	6. 살어리랏다
3. 본다(감각)	7. 드로라(감각)
4. 엇지호리랏	8. 엇지호리잇고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따라 본가를 재배열하고 그 小主題를 살펴보면

5) 한편 “靑山別曲”의 주제를 鄭炳昱교수는 (『韓國古典詩歌論』) 술의 노래로 李勝明교수는(“靑山別曲研究”) 삶에의 강한 의지와 현실에의 적극적 참여라고 보았다.

6) 權在善, “靑山別曲 語釋攷”(韓國社會事業大學 論文 7輯, 1977), p. 203.

靑山 聯과 바다 聯의 內容 展開는 너무나 상이하며 또한 이들의 주장을 따르다면 과연 청산별곡이 麗謠의 白眉인가? 라는 강한 反問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편의상 權在善교수의 論理대로 全聯을 게재하고 그 소주제를 살펴보자.

청 산 별 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청산에 은거”	바라래 살어리랏다	“바다에
덜위랑 다래랑 먹고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은거”
청산에 살어리랏다		바라래 살어리랏다	
우러라 우러라 새여		어디다 던지던 돌코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우수”	누리라 마치던 돌코	“고적잡의
넬라와 시튼한 내도		의리도 피리도 없시	절정”
자고 니러 우니노라		마자서 우니노라	
가던새 가던새 본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물아래 가던새 본다	“속세에 대	예경지 가다가 드로라	“속세
임무든 장굴란 가지고	한 그리움”	사사미 짐대에 올라서	통과”
물아래 가던새 본다		혜금술 허거늘 드로라	
이리공 저리공 하야		가다니 배브른 도끼	
나즈란 지내와 손더	“밤의 교독”	실진 강수를 비조라	“속세에
오리도 가리도 없은		조롱곳 누르기매와	안주”
밤으란 또 어떠하리라		잡사와니 내엇디 하리잇고	

이렇게 볼 때, 形式面에서 整然한 對稱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靑山 聯과 바다 聯은 별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노래가 문학작품이라기 보다는 노래의 가사였다는 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 노래를 國歌 또는 麗謠의 代表格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西京別曲”, “鄭石歌”, “滿殿春” 등이 전해오던 민요를 중국에서 새

로 유입된 宋樂에 맞추기 위하여 再構成했다는 見解”는 타당성 있는 견해며, “靑山別곡”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상기 속요들이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비단 구전하던 노래를 재편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整齊된 形式美와 主題的 均齊美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靑山別곡”의 주제적 정연성을 歌의 장점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5·6편을 그대로 놓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本歌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 필자는 “靑山別곡”이 어떤 이유에 선가 自意 半 他意 半 작자는 靑산에 기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서 山中生活을 상상해 본 노래로 보고자 한다. 즉

靑산에 은거한다. 산속의 孤寂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다로 가기 위해 여항을 지난다. 俗世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속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과정을 읊은 俗世 禮讚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靑산에의 隱遁을 가정해 본 노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本歌는 부분의 단절이 없이 聯問의 內容의 間隔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품 자체로 돌아가 보자.

俗世에서 失戀을 했건, 當境에서 패배하여 축출을 당했건, 利害와 榮辱에 찌든 현실이 싫어져 자의로 은둔을 희망하던 작자는 어떠한 이유에 선가 靑산에의 은둔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산속에는 새만이 벗이 되어 줄 뿐이고, 그 새마저 나의 시름을 달래주기 보다는 오히려 번민을 더해주고 있다. 그나마 山中의 벗인 이 새마저 속세로 날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자진해서 찾아 왔을지 모르는 靑山이지만 후회스럽기도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밤은 작자의 孤獨感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독감이 심화되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병이 되었기에, 바다로 가면 어떨까 하여 山을 나서 본다. 이때 閭巷의 거리에선 사람들이 모여

7) 金宅圭, “別曲의 構造”(『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5), p. 254.

광대놀이를 구경하고 있고, 조금 더 가니까 탁한 술을 빚는 酒幕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치 못하고 주막에 들어가 술잔을 들어야 했다. 즉 작자는 자존심을 버리고 산을 떠나 세속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 청산에 은거했던 또는 청산에 은거할 때 자신이 겪을 상황을 회고 또는 상상하며 작자는 “청산별곡”을 짓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볼 때, 本歌는 分段體가 아니라 連章體임이 분명하다. 또한 “청산별곡”이라는 제목은 “滿殿春”·“西京別曲”에서와 같이 첫 편 첫귀에 靑山이란 단어가 있어서 取桴한 것이지<sup>8)</sup> 청산을 예찬하기 위하여 또는 自然 歸依를 암시하기 위하여 선택한 제목은 아닌 것 같다. 이 노래가 산과 바다의 2分段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연 운문의 노래라면서 그 제목은 “청산별곡” 보다 “山海別曲”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이 노래를 이해함에 있어 “청산”이란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新曲에 맞춰 전래하던 민요를 編詞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편사자는 나름대로 주제적 論理性을 기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이 필자가 유추한 현실에 대한 愛着이라고 볼 때, 비로소 本歌는 主題的 均齊美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避世는 黨爭의 渦中 속에서 조선조 사대부가 취했던 삶의 태도였으며, 그 전통은 고려조 귀족의 반란 이후 귀족들의 流配生活에서 연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다고 볼 때, 속요라는 점에 구애되어 “청산별곡”은 유랑민의 窮乏相을 나타낸 것이고, 그 작가는 평민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는<sup>9)</sup> 재고할

8) 崔正如, “高麗의 俗謠歌詞論攷”(『高麗歌謠研究』, 正音社, 1979), p.113.

9) 李仁模·金完鎭교수는 全篇을 貫流하는 여성적 가락과 ‘비조라’ ‘드로라’의 어법상 작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徐首生교수는 부패한 사회에서 失意하여 俗世를 도피한 平民文士의 作이라고 추단하였다. 한편 李勝明교수는 結句方式이나 상징성·우의성으로 미루어 보아 평민이나 서민이 아니고 상당한 학식을 가진 귀족계급의 사관이라고 추정하였고, 鄭炳昱교수도 그의 「고전시가론」에서 “청산별곡”과 “쌍화점”은 그 작가가 지식층임을 고증한 바 있다.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외래악이 수입될 때 國內樂은 ① 기존 사설의 새가락에 代入 ② 새가락과 새사설의 조절 ③ 새사설의 창작이란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으며, “靑山別曲”도 이 중 ②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고 한 金宅圭교수의 견해는 注目할 만하다 하겠다. 즉 本歌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민요부분일 경우도 있고 作詞者의 창작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일부분을 민요에서 取材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일관성있게 재조정 한 사람은 궁중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문식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專門家가 作詞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鄭瓜亭曲”과 “滿殿春”, “西京別曲”과 “鄭石歌”에 동일한 傳承句가 삽입되어 있지만 그들 각자는 나름대로 整然한 論理를 가진 노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속요는 단지 그 명칭에만 拘碍되어 작품 속에서 억지로 명민 의식을 도출하려 하거나, 공동작 또는 평민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즉 俗謠中 別曲으로 불리어졌고,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西京別曲”·“翰林別曲”·“靑山別曲”·“滿殿春” 등의 作者에 대해서는 別度の 高찰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靑山別曲”의 창작시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형식과 언어구사법, 시상·정서 등의 면에서 고려시대에 창작된 가요를 추정했으며, 徐首生교수는 ‘예정지’는 고종조 嵇琴의 名手인 宗智라고 보고, 高宗(1216~1259) 前後 作品으로 보았다. 한편 金宅圭교수는 최초의 韓문 別曲인 翰林別曲이 고종 3년(1219)에 창작되었지만, 別曲을 배태시킨 宋樂의 傳來는 예종대(1106~1112)까지<sup>11)</sup> 소급해 볼 수 있다고 보아 國文 別曲인 “西京別曲”·“靑山別曲”의 창작시기를 예종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sup>12)</sup> 보았다.

10) 金宅圭, 前揭書, p.250.

11) 張師勛, 「國樂論攷」, 서울대출판부, 1980, p.536.

12) 金宅圭, 前揭書, p.256.

필자는 仁宗때 이미 鄭叙가 유배지에서 “鄭瓜亭曲”을 지어 戀君의 정을 읊었듯이, 本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산림에 은거해 본 사람이며 그 이유는 政爭으로 인한 일시적 避身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예종 이후 宋樂이 전래되어 別曲이 창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한 고려조에 정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은 仁宗때 李資謙의 叛亂(1126, 인종 4년)과 妙淸의 亂(1135, 인종 13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이 때 은둔을 경험했던 자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럼 본곡의 대략적인 윤곽을 이 정도로 제시해 놓고, 주석상의 문제점을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살어리랏다’에 대하여 ‘살았을 것일’ (鄭炳昱) 또는 “살아갈 것이로다” (朴炳采) 등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승명교수가 “I must go to live in the mountain, otherwise I should die”라고<sup>13)</sup> 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당시의 작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로 보고자 한다.

둘째, 3련의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물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임무든 장그”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의 主體를 규명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徐首生·鄭炳昱·全圭泰교수는 “가지고”의 주체를 작가로 보았고, 李仁模·李勝明·朴永煥교수는 새로 보았다. 즉 李仁模교수는 사람에 비유된 새로, 李勝明교수는 俗世로 떠나는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로, 朴永煥교수는 부리에 이끼를 물고 날아가는 새로 각각 설명하였다.

비단 統辭論상 “가지고”의 주체가 새일 수도 작가일 수도 있지만, 새로 보는 견해들은 새의 상징의미로 사람을 설정해야 했으며 장그를 부리로 보는 비약을 수반해야 했다.

13) 李勝明, “靑山別曲研究”(『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5), p.125.



“우러라 우러라 새여 /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 널라와 시름한 나도 / 자고 니러 우니노라”는 2聯의 1·2句는 새에 대한 관찰이고, 3·4句는 그 감정의 작가에로의 移轉을 보여주고 있듯이, 3련도 1·2句는 새에 대한 客觀的 관찰이며, 3·4句는 작가의 主觀的 심정의 吐露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남는 문제점은 왜 작자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

작자는 원래 청산에 살던 사람이 아니요, 속세에 있다가 부득이 하여 청산을 찾은 사람이다. 그리고 靑山에는 山菜와 山果가 있다. 그리하여 당분간은 식량 걱정이 없었지만은 山中 生活이 계속되자 근심을 덜어버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山中 卜居를 위하여 밭을 일구어야 했으리라. 그러다 보니 이끼가 잔뜩 낀 쟁기를 메고 산중의 밭을 갈려고 집을 나서게 되었으며, 그 때 물 아래 동네로 날아가는 새를 보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에정지 가다가 드로라”의 “에정지”에 대하여 梁柱東교수는 避 厨로, 全圭泰교수는 마당으로, 徐首生교수는 高宗때 嵇琴의 명수 宗智로, 金尙憺교수는 “정지”의 도치로 보았다. 이를 참고로 하여 朴永煥교수는 부엌에 가다가 사슴벌레가 장대에 앉아서 우는 것을 듣는대로, 金亨奎교수는 사슴은 사람의 誤刻으로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 곡예를 하는 것을 듣는대로, 梁柱東교수는 卑猥한 장면을 戲謔的으로 노래한 淫辭로, 徐首生교수는 嵇琴의 名手 宗智여! 사슴이 長竹林裏에 들어가 혜금을 켜는 듯한 울음소리를 들어보아라로, 鄭炳昱교수는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는 등으로 해석하였는데, 어느 것 하나 전체적인 문맥의 부분으로서 自足性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金完鎭교수의 견해가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바다로 가기 위해 마을 어딘가(에정지: 豫定地(?)—筆者註)를 가다가 저 편에서 들리는 山壺雜戲輩들의 떠들석한 소리를 듣고 사슴의 탈을 쓰고 장대에 올라가 혜금을 켜는 廣大의 曲藝와 歡聲을 지

르는 구경꾼의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네째, “가다니 배부른 도기/설진 강수를 비조라/조롱곳 누르기 배와/잡사와니 내 엇디 하리있고”의 마지막 연도 “가다니”의 주체, “강수를 빚는” 주체, “잡사와니”의 주체와 객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대체로 “내가 가서 배부른 독에 강수를 빚어 마시며 술에 취하겠노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가다보니/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 사람이 있구나/조롱곳 같은 누룩의 냄새가 독하여 (나를) 잡으니/내가 어찌 술을 의변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술이란 술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찌면 세속적 쾌락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 Ⅲ. “靑山別曲” 通釋

위에서 살펴본 주제·작자·창작시기·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과 語釋을 바탕으로 本歌를 통석해 보자.

어떤 이유에선가 작자는 靑山에 살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현재 입장을 생각해 본다. 진실로 泉石을 좋아하여 자연귀의를 하였다면, 구태여 새소리에 시름을 느끼고 밤을 괴로워 하고 俗世를 그리워 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청산에 살겠다는 序頭 句節이 집착하여 隱遁歌려니 하는 先入觀念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하튼 현실에 대한 좌절과 실망 때문에 청산을 찾고 싶은 욕망을 간절히 느끼고 있으리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과거 은둔생활을 했던 시기의 고충을 생각해 본다.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머루랑 다래랑 따먹고/나도 청산에서 살아보겠노라.

그러나 閨巷에 기거하던 작자가 갑자기 산속에서 獨居하게 되자, 벗 이라고는 말없는 自然과 지저귀는 새 뿐이었으리라. 이 새의 울음은 허전한 작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커녕 오히려 벗없이 홀로 있는 작자의 외로움을 가일층 심화시켰을 것이다.

우는구나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 자고 일어나 울고 있노라.

작자는 원래 山中 사람이 아니었기에 의식주 문제에 걱정이 없을 수 없었으리라. 옷과 집은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다지만, 머루와 다래만으로는 식량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랜 동안 헛간에 묵혀 두었던, 이끼가 많이 낀 쟁기를 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밭이라도 일구고 씨앗을 뿌려야 했으리라. 때마침 시름을 자아내던 새가 몰아래 동네 쪽 속세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그리하여 다시금 속세를 동경하는 마음이 작자의 머리에서 일렁이고 있다.

가던 새 속세로 날아가던 새 본다 / 이끼물은 쟁기를 가지고 나는 / 속세로 날아가던 새를 본다.

바깥 세상의 이런 일 저런 일을 공상하매 그리고 밭이라도 갈면서 낮은 보냈지마는 등불을 밝히고 외로운 침상에 든 작자는 왜 내가 이러한 산 속에 와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으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속세로 내려갈까도 망설여 보았으리라.

이러저러하여 낮은 보냈지마는 /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 이 산간의 밤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山中 生活이 계속되자 까닭없이 가슴엔 수심이 깊어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孤獨의 심연으로 작자는 빠져 들었을 것이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 누구를 맞히려는 돌이었는가 /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는데 / 내가 왜 맞아서 울고 있는지

고독을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작자는 결단을 내려본다. 속세로 귀환하는 것은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혹시 바다로 가면 이 근심이 풀어지지 않겠는가고.

살아보자/어디 한번 바다에 가서 살아보자/나문재와 조개를 먹고/바다에 가서 살아보자.

그리하여 결단을 내린 작자는 이주 보따리를 준비하여 바다로 가는 길에 올랐으리라. 얼마쯤 가다 여항을 지나려니, 사슴의 탈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 혜금을 켜는 묘기를 부리며 그를 둘러싼 구경꾼들은 환성을 지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나도 저 무리에 끼여서 세속적 쾌락을 즐겨나 볼까?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山村에 寓居를 결정했던 본래의 작오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가다보니 들리는구나/어디쯤 가니까 들리는구나/사슴의 탈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서/악기를 켜는 것이 들리는구나.

얼마쯤 더 가다보니, 이제는 숲을 빛는 주막이 있고 조롱꽃 같은 누룩의 모양과 그 냄새가辛烈하여 도저히 나의 발걸음을 빼놓지 못하게 하니 어찌 바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랴.

가다가 보니/배부른 독에 실진 강수를 빛는 사람이 있구나/조롱꽃 같은 누룩의 냄새가 독하여 나를 잡으니/내가 어찌 숲을 떠날 수 있겠는가.

결국 자연에 은거하며 살겠다는 알박한 자존심을 버리고 세속적 즐거움을 누리며 世人과 어울려 그럭저럭 살고자 작자는 마음 먹었으리라.

이렇게 볼 때 “청산별곡”은 주제면에서 일정한 전개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산별곡”은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자연에 은거를 생각했다가 현실적 욕망을 떨치지 못하고 은둔을 포기 속세에 안주한 지식인의 관념적 허세가 내포된 노래라고 생각된다.

물론 은둔자의 속세귀환의 노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연에

서 현실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짓는다는 것은 그 현실성에서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과거 산림에 은거해 본 사람이 산림에 은거해야 할 입장에서 속세를 택하는 속세예찬의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즉 “靑山別곡” 1련은 발단으로 靑山에 은거를, 2·3련은 전개부분으로 山속의 憂愁와 俗世에 대한 동경을, 4·5련은 山속의 고독이 극대화되는 絶頂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6·7련은 산속의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바다로 떠나보는 전환에 해당하며, 8련은 자신의 虛勢的 자존심을 버리고 속세로 돌아오는 대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靑山別곡”은 작자의 실제행동의 기술이 아니라, 은거와 속세로의 귀환과정에 대한 관념적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그의 과거체험에서 도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靑山別곡”과 한국적 隱求

無爲自然을 도덕의 표준으로 하여, 虛無를 우주의 근원으로 삼은 老莊思想은 현실을 버리고 자연에 묻혀 한평생을 보내는 은둔계를 낳았으니 이들이 바로 중국의 竹林七賢이다. 이러한 은둔사상이 한국에는 유교적 실천윤리에 여과되어 들어온 까닭에 觀念的 江湖歌道를 낳았고, 그 한국적 실천은 대체로 致仕後 閒適이나 黨爭下의 避世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피세한 자연 속에서도 향시 임금의 덕을 기리며 다시 때의 만남을 고대했다. 이를 한마디로 崔珍源교수는 “(中國의) 은둔은 노장적 現實否定이요, (韓國의) 隱求是 儒學的 現實肯定이다”<sup>14)</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鄭炳昱교수는 “‘靑山別곡’은 조선조의 시조와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은둔가와 정반대의 작품이다”<sup>15)</sup>라고 말한 바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靑

14)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大出版部, 1977, p.13.

山別曲”은 은둔의 노래라기 보다는 隱求의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당쟁으로 山林을 찾았던 조선조 사대부의 은구가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예찬의 노래를 구가하던 觀念的 無爲自然의 面과 山林에 있으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세태관망적 피신의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려 의종 5년(1151)에 鄭叙는 嬖臣 정함·김존중의 讒訴로 동래 및 거제도도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원망하기는 커녕 자신의 억울함과 임금에의 忠情을 토로한 “鄭瓜亭曲”을 읊었다. 그리고 明宗 元年(1170)에 대사령으로 유배지에서 풀려 재등용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先祖는 비단 深山幽谷의 유배지에서 自然을 벗하며 그 樂을 찾기 보다는 언제나 赦免이 이루어져 出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士大夫의 삶의 모습은 조선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강호에 노자하니 성주를 버리려고  
성주를 섬기자니 所樂에 어긋예라  
호은자 岐路에 서 갈 터 몰라 호노라

에서 보다시피, 權好文은 임금을 섬겨야 할 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지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이러한 망설임은 항시 宦路에의 진출로 갈등은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기로운 달빛은 초가를 뚫고  
대나무에 이는 바람은 돌계단을 쓴다  
깊숙한 이곳에 사람은 오지 않고  
산새들만 한가로이 날아 오간다.

(蘿月穿茅屋 疎籬掃石壇 巷深人不到 山鳥去來閑)

——朴仁老, 蘆洲幽居——

이 시에서 蘆溪는 山林에서 隱逸自適하는 마음을 노래하기 보다는 궁벽한 幽居地에 知友조차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 세상의 부요함과 존귀 따위는 / 모두 하늘에 맡겼도다”라고 하면서 충성과 효도할 方法을 강구하고 있으며(“天字十五韻贈樂山亭主人”), 속세를 벗어나 산중에 살면서도 헛되이 물가에서 늙어가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蘆溪卜居”) 이처럼 관직이 고작 만호에 이르렀다가 退任한 노계가 마치 귀양살이를 하면서 군주를 그리는 듯한 한시를 지었음은 宦路에 나아가 자신의 운지를 펴보고 싶은 심정의 反語法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崔珍源교수는 “書劍을 이루고 立身揚名할 수만 있다면 江湖는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호에서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홀로의 세계를 뽐내다가 기회만 오면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關東 800리에 방편을 맞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 더욱 망극하다’라고 서슴없이 저버리고 현실로 뛰어드는 것이”<sup>16)</sup> 사대부의 생활태도였다고 강조하였다.

“청산별곡”이 강호를 동경하고 귀거래하였으나 청산이 받아주지 않자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속세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상상의 노래라고 할 때, 이 노래는 韓國的 歸去來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노래는 중국의 隱遁歌와는 다른 韓國的 隱求歌이며, 이는 經國齊民의 儒敎倫理에 지배를 받은 우리 先人들의 당연한 삶의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 V.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산별곡”은 아직까지 몇몇 구절에 대해 학자마다 그 해석이 다르지만, 해석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連章體인가 分章體인가 그리

16) 崔珍源, 前揭書, p.25.

고 5·6련의 순서바뀔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했다. 이에 형식·내용 양면에서 고찰하여, 본가는 連章體로 보아야 하며, 연의 순서도 현행대로 바뀔이 없어야만 주제적 一貫性을 가질 것이라고 증명해 보았다.

또한 이 노래가 민요의 상당 부분을 內包하고 있다 하더라도, 作者는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文識있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제는 어떤 연유에선가 속세를 떠나 청산에 기거하게 되었던 작자가 산속의 고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상상해본 현실애착으로 생각해 보았다. 창작시기는 宋樂이 예종때 流入되었던 점을 기준으로 하여, 귀족으로 하여금 山林에 은거를 강요했던 귀족의 叛亂期인 인종대가 아닐까 추정해 보았다.

解釋의 문제에 있어서도, 3련의 ‘가지고’의 主體를 “작자”로 보았고, 末聯의 해석을 “(내가) 가다보니/배부른 독에 설진 장수를 빚는 사람이 있구나/조통곳 같은 누룩의 냄새가 독하여(나를) 잡으니/내 어찌 술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로 해석하였고, 여기에서 술을 술 자체의 의미보다 세속적 즐거움의 대명사로 보고자 했다.

“청산별곡”에서 볼 수 있는 산림속에서 속세에 대한 관심 표명은 中國의 無爲自然과는 다른 것으로, 이는 朝鮮朝 士大夫의 일반적 삶의 방식으로써 유교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필자는 韓國的 隱求라고 命名해 보았다. 결국 “청산별곡”은 이런 류의 作品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參 考 文 獻

- 權奇浩, “靑山別曲과 禪詩”(慶北大 東洋文化研究 2, 1975).  
 權在善, “靑山別曲語釋攷”(韓國社會事業大學論文集 7, 1977).  
 金思煒, 「改稿國文學史」, 正晉社, 1956.  
 金尙憶, “靑山別曲研究”(國語國文學 30號, 1965).  
 金明昊, “高麗歌謠의 全般的 性格”(「韓國詩歌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3).



- 金完綱, “青山別曲에 대하여”(『古典文學를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金仁煥, “異解 青山別曲”(『高大 教養 2』, 1965).  
 金宅圭, “別曲의 構造”(『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5).  
 金亨奎, 『古歌謠註釋』, 一潮閣, 1967.  
 朴炳采, 『高麗歌謠語釋研究』, 宣明文化社, 1968.  
 朴晟義, 『韓國歌謠文學論』, 宣明文化社, 1974.  
 朴永煥, “青山別曲 再分析”(『3士論文 11輯』, 1980).  
 徐首生, “青山別曲小攷”(『韓國詩歌研究』, 螢雪出版社, 1974).  
 徐在克, “麗謠註釋의 問題點 分析”(『語文學 19號』, 1968).  
 \_\_\_\_\_, “麗謠解釋에 따른 몇가지 問題”(『國語國文學 64號』, 1975).  
 成賢慶, “青山別曲攷”(『國語國文學 58·59·60 合併號』, 1972).  
 申東旭, “青山別曲과 平民의 審의식”(『高麗時代의 歌謠文學』, 세문사, 1981).  
 安秉俊, “青山別曲小攷”(『公州師大 國文學 1號』, 1949).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李明九, 『高麗歌謠의 研究』, 新雅社, 1974).  
 李秉姈, “時用鄉樂謠의 한 考察”(『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化』, 螢雪出版社, 1975).  
 李勝明, “青山別曲研究”(『高麗歌謠研究』, 正音社, 1979).  
 李仁模, “青山別曲 內容의 再檢討”(『國語國文學 61號』, 1973).  
 全圭泰, 『高麗歌謠』, 正音社, 1968.  
 張志暎, “青山別曲”(『한글 108號』, 1955).  
 鄭東華, 高麗詩歌의 修辭技巧研究 『箕軒孫浴菴先生回甲記念論文集』, 1972).  
 鄭炳昱, 『한국고전시가론』, 新丘文化社, 1978.  
 崔正如, “高麗의 俗謠歌詞論攷”(『高麗歌謠研究』, 正音社, 1979).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大出版部, 1977.